

특 집

전통적 온돌문화 재조명한다

구들의 기원과 문화적 가치

독특한 구들난방 문화적 가치 인식해야

구들이란 불을 이용하여 몸의 따뜻함을 얻게 하는 난방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구들은 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들의 기원을 말하고자 할때는 먼저 불에 관하여 말함이 마땅하고 불을 말함에 있어서는 불이 필요한 사람과 이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인종, 민족, 국가를 막론하고 불을 잘 이용하는 경우는 흥하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은 가까운 1, 2차 세계대전에서 불(火藥)로 전쟁을 일으키고 불(원자탄)로 전쟁을 끝내게 되었던 사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미리 많은 불을 준비하고 불이 약하면 전쟁에 지게된다.

화약이나 원자탄은 고도의 과학발전으로 인해 기록되었으나 옛날에는 여러가지 화공(火攻)의 방법으로 불이 이용되었고 개인 대 개인으로부터 부족 혹은 국가도 불을 세력 장악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원시인이 불을 발견하고 불을 얻게 되므로써 문명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인류의 불이용에 관하여서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의 차가 있겠으나 대체로 구석기시대 중기 경에 불을 얻어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류가 최초로 불을

이용한 시기는 이보다는 훨씬 더 앞선 시대라고 믿고 있다.

불을 사용한 유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주구점 동굴에서 1922~1926년에 일본인(昔告信部)이 발굴한 약 100만년전 원시인의 두개골 화석(북경인) 및 모닥불을 피운 자리를 발견한 것으로 이는 구석기시대 중기 이전에 해당된다.

불의 발견으로 구들문화 탄생

그러면 이 원시인(北京人)은 어디에서 왔으며 불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는것은 불을 이용한 구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중국동부, 요동(遼東), 만주, 한반도등 지역에는 170~200만년 전부터 이미 원시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 후손이 두개골이 주구점동굴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고문헌(古文獻) 등에서 우리 민족의 조상을 동이(東夷)로 기록하였고 동이족을 도이, 우이, 래이, 개이, 근모이, 화이, 서융 등으로 분포 지역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누었으나 이는 모두 중국 대륙의 동부인 양자강하류부터 황하하류지역에 고루 분포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즉 중국내륙인 서안지역에서

남, 서, 북쪽에서만 그들 중국인의 분포지역이고 동부는 동이족의 영지였던 것이다.

이들 동이족은 만주에서 남하하였고 만주나 한반도의 동이족과 같은 부족이다.

중국대륙의 동이족 및 한반도의 동이족은 만주에서 남하하였고 만주의 동이족은 후룬지(吼倫池), 바이칼호, 초원의 길, 카자흐, 알타이, 카스피해 및 흑해연안으로부터 오랜 시대와 긴거리를 연쇄적으로 뒤를 이어 유동하여 도달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동진유동(東進流動)하는 지역은 여름에는 많은 종류의 철집승이 살다가 겨울철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옮기는 짐승이나 새가 있어 원시인이 먹이를 쫓아 여름에 이곳에 왔다가 너무 깊어 들어가게 되어 겨울을 만나 먹이 없는 흑한을 유동하게 되었을 것이다.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은 길고 추우며 많은 눈으로 행동이 제한받게 되고 햇빛이 있는 낮을 기다리게 되며 해가 뜨는 동쪽으로 더 가까이 가서 햇빛을 만나기 위한 동진유동이 시작되고 몇천만년 몇백만년을 계속하여 연속적인 유동이 계속되었으며 동사, 동상 등으로 많은 희생이 따랐으나 생존자만이 만주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일부는 만주에서 계속 동진하여 알라스카, 북미, 남미까지 유동하여 에스키모, 인디언, 멕시칸, 인디오 등이 되어 먼훗날 시대의 문명과 만나게 되고 만주에서 남하한 부류가 동이족이 되었다.

만주에서 남하한 동이족은 불을 얻었기 때문에 동진하지 않고 남하할 수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들을 생존방식과 지혜가 축적되어 구석기, 토기, 청동기 등의 독창적인 문화를 이룩하여 우리 문화의 기틀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문화의 독특하고도 독창적인 문화는 불의 문화이며 구들문화이다. 낮에는 태양빛으로 몸을 녹이고 밤에는 불을 피워 몸의 일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구들을 만들 수 있게하는 방식인 돌에 열을 저축하는 즉 축열하는 방법이며 축열된 돌을 몸에 품거나, 앉거나 누워서 취난(取煖)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동진유동 루-트는 춥고, 바람이 강한 산악지



대로서 나무와 마찰 되어 산화가 일어날 수 있어 산불에서 불을 얻어 모닥불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며 화산등에서도 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모닥불을 지피우면 강한 바람에 불이 꺼지기 쉬우므로 바람막이 돌을 세워놓게 되고 그 돌이 축열되는 것으로, 또는 불탄자리의 땅도 축열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었다.

뚜껑돌이 구들의 효시

불씨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모닥불이 비나 눈으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뚜껑돌을 엮게 되고 이 뚜껑돌이 구들의 효시(爻始)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것이 외구들이며 구들의 발상이다.

주위에 세운 돌잠은 흙으로 막아 쌓아올려 뚜껑돌과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하고, 연기를 한쪽으로 빠지게하여 한쪽에서 불을 연속적으로 피우게 발전시키고, 더 길게 더 넓게 하여 경험적으로 계속하여 여러시대에 걸쳐 지금의 구들을 완성한 것이다.

단독 행동의 원시인이 불을 얻어 가족이 헤어지지 않게 되고 구들로써 무리가 이룩되고 무리가 커져 부족이 형성되고 부족이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어 숙신(肅愼), 부여(扶餘), 진(晉) 등 고대국가로 발전되고 부여에서 고구려가 도출(導出)되어 국가 형태를 갖추면서 남하해 중국 북부(동이족의 古地) 및 만주에서 건국되었다(고구려는 건국 연대는 미상). 남쪽에서는 진에 이어 삼한이 삼한에서 신라 백제가 늦게 건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들은 취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식문화(食文化)에 절대적인 원전적 영향을 미쳤다.

먹다가 남은 먹이는 나무 위에 걸어 말리거나, 얼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다시 먹을 수 있게 하는 습성에서 먹이가 얼어 돌같이 굳으면 불로 해동(解凍)시켜 먹게 되는 바 지나치게 구우면 태워 먹게 되고 이것이 불고기, 구우면 군밤, 군고구마, 생선구이 등으로 또 지금도 야외에서 돌에 고기를 구워먹거나 돌솥밥등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말리거나, 열게하여 구워먹는 습성도 구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근년 우리의 불고기와 김치는 그 진가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 알려져 먹기를 즐기고 있으며 그 맛과 영양가면에서 인정되고 있음은 우리 식문화(食文化)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화되어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토기제작의 원천이 된 구들

또 구들은 그 구조가 독특한 난방방식일 뿐만 아니라, 거의 무한의 고열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으로 하여 토기제작의 원천(源泉)의 구실을 하였다.

구들은 돌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바 진흙은 진흙은 점성이 우수하고 밀도가 좋으며 물에 반죽하여 가열되면 돌과 돌을 견고하게 결합하고 그 자체가 돌같이 견고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묽은 진흙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 구들불에서 가열하여 토기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불무덤으로부터 토기를 구울 수 있게 되어 불무덤이 발전하여 요로(窯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요로의 구조가 바닥을 구들과 같이 고래고 되어있고 진흙과 돌로 불무덤을 쌓아 축열을 크게 하게 되어있고 아궁이 및 굴뚝등이 구들 그대로이다. 구들장대신 구들토기를 얹어놓고 가열하여 장시간 밀폐하여 굽는 것이다.

이런 토기제작기술이 고려자기 같은 세계적인 명물을 만들수 있게 하였고 청동기 철기시대를 거쳐 세계 최초의 철활자(鐵活字)를 발명하게 하였다.

우리들의 청동기문화는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기재료의 불순물인 이물질(異物質) 즉 동(銅)등이 걸려져 청동기문화가 이룩될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우리 청동기문화는 다른데서

배우거나 유입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룩된 것이며 발전한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민족의 조상들이 분포되었던 땅의 어디를 발굴하여도 토기조각이나 나올 정도로 토기유물이 많은 것은 그만큼 진흙에 관련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불무덤은 원시시대의 불보전의 한 방법으로서 추운지방의 나무는 견고하여 숯불도 더 오랫동안 피어있을 수 있으므로 불을 피워 숯불이 많을 때 풀잎을 숯불위에 덮어씌워 풀층을 이루고 풀에 불이 붙어 타기전에 빨리 흙을 덮어 밀폐시켜 공기와 열의 유통을 차단하여 불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불씨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수십년전만 해도 화로불에 재를 덮어 씌우고 잘 다지면 5~16시간은 충분히 불씨를 보존하는 일은 시골에서 집집이 이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불무덤이 토기요로(土器窯路)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집은 건축양식과 재료가 방한적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고 원시시대의 동굴에서 사평야 지대의 혈거(穴居)생활을 거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것으로서 구들의 발달이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열대지방 사람들의 나무위에 만든 등지 집같이 땅속에서 땅굴생활로 문화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독특한 구들 난방 문화적 가치 커

땅 밑에서 땅 위로 올라와서 살 수 있게 하여준 것이 구들이다.

구들이 발전하여 구들로 난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지상으로 삶을 옮길수가 있었다고 믿어진다.

지상에 집을 지어도 바닥은 구들 천정은 진흙을 덮어 바르고 벽을 외를 엮고 초벽, 말벽, 재벽, 마감 사벽등 실로 동서남북, 바닥천정등 모두 두터운 진흙으로 되어있어 땅굴과 다를바 없는 보온, 방한구조로 되어있다.

집은 구들을 보호하고 구들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절묘한 구조로 되어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구들이 바닥에 있다.

장마철의 습기는 진흙이 흡수하였다가 건조하면 방출하여 방의 습도를 조절하여 준다. 땅에서 올라 오는 습기는 구들고래가 막아주고 겨울에는 지열을 고래가 저장하여 준다. 문창은 미단이와 덧문으로 이중구조이며 창호지로 공기를 적절히 환기시켜주고 문풍지로 급격한 한기(寒氣)의 유입을 막아준다.

한민족은 앉은 자세가 꼬아앉는 독특한 좌위(坐位)이다. 이 좌위는 아메리카 인디안과 같다. 중국 사람은 의자에 좌위(坐位)하고 침상(寢床)에서 잔다. 일본사람은 꿇어 앉는다. 높은 사람은 한국식 좌위(坐位)를 한다.

한국사람이 앉아있을 때는 몸이 가장 많이 구들에 닿는다. 이는 구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최대로 구들과 몸의 부분이 접촉되는 자세이다. 즉 앉는 자세부터 우리는 다른 종족이나 민족과는 독특하게 다른 것이 구들의 영향이고 안정적이다.

구들이 몸에 닿아 따뜻함을 주는 그 쾌감은 다른 난방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으며 서양난방은 천정만 따뜻하게 가열하는 비경제적인 난방인 반면 사람의 몸은 항상 추운 밑에 있게 되어 의자 침대 등 땅에서 떠있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된다.

우리가 요를 깔고 누우면 구들의 열을 요에 축열하여 몸의 많은 부분은 따뜻하게 하여주고 이불은 더 넓어 구들에서 나는 열을 모아서 축열하여 바닥에 닿지않는 몸의 부분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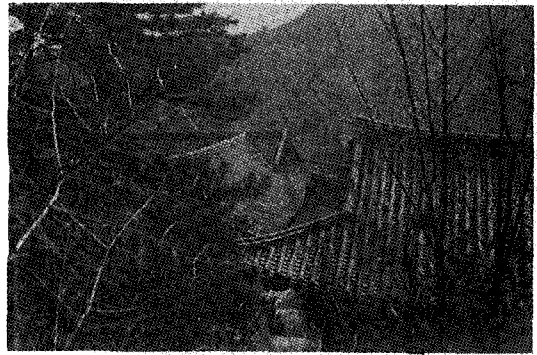
두한족열(頭寒足熱)이 인체와 온도의 이상적인 상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추운곳에서 방으로 들어와 손과 발을 아랫목 따뜻한 이불 속에 담구면 따뜻한 쾌감은 말할 수 없이 좋다.

이런 따뜻함이 따뜻한 마음씨를 만들고 따뜻한 마음이 민족의 우수한 자질을 갖게하고 우수한 민족문화로 꽃피우게 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우리가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륙의 힘을 배제하고 온갖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우수한 우리의 문화의 덕이고 근세에 개방되어 세계 문물과 접촉 결과 우리의 문화가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 으뜸이 구들난방방법이다.

구들이 우수한 것이라는 것은 근년 오일쇼크로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축열방법과 상난방 방법, 전면난방방법, (全面), 저온도난방방법, 기계 직접난방방법등을 우리들의 조상이 아득히 먼 옛날 이미 개발하여 전승되어 우리가 사용해 오고 있던 것이다.

일본은 만주를 강점하고 캉(炕)을 연구하였고 조선총독부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구들을 연구하였고 수년전부터 서독에서 상난방과, 축열방식에 관하여 연구하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 구들에는 못미친다고 보나 멀지 않은 장래에 굴러온 돌이 배긴 돌을 뺄까봐 걱정된다.

종래 전승된 구들은 개량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연료문제, 불을 넣지 않을때 아궁이에서 찬공기가 들어가 구들의 열을 대기로 빼내는 열손실방지문제, 연소로 발생하는 매연의 공해문제, 시공의 과학화 등은 우리가 해결해 현대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구들이 우리문화를 만들었으므로 이제는 그 문화로 구들을 발전시킬 때가 왔다고 보며 앞으로 우수한 구들난방이 이룩되어 더욱 우리문화를 발전시킬 때가 곧 올것으로 믿는다.

우리 조상의 유물을 우리 세대에 남에게 빼앗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구들이 폐쇄적이었으므로 앞으로는 탈피 개방하여 방구들에서 집구들로 집구들에서 빌딩, 공장, 체육관, 보온농장, 선박, 비행기 등 난방이 필요한 모든 건축조물에 확대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㉞